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전강 스님(2)

전강, 무자 의지를 반만 일러주십시오

혜봉, 무(無)!

자네가 한번 일러보게

전강, 무(無)!

전강(田岡, 1898~1975) 선사가 24세 때였다. 마침 마곡사 아래 구암리에 주석하고 있던 선지식 혜봉(慧峯, 1874~1956) 스님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조주 무자(無字) 의지는 천하 선지식도 반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무자 의지를 반만 일러주십시오.” 혜봉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무(無)!”라고 말했다.

“그것이 어찌 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전강 자네가 한번 일러보게.” “무(無)!”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선지식을 저울질하려 했던 전강 스님은 ‘무자’ 공안에 대한 해

‘無字’공안 질문으로 선지식 저울질

조주 ‘개의 불성은 때론 無 때론 有’

답에 만족하지 않았지. 그 역시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조주록>에 나오는 ‘무자 공안’의 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학인이 조주 스님께 여쭙는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狗子還有佛性也無?)” “없다(無).”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왜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에게는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 사상은 여러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다. 즉 곤충이나 미물에 이르기까지 몸을 움직일 줄 알기만 한다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개에게도

불성이 있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미나 미물은 전생의 지은 업보로 인하여 축성이 되었고 지혜도 없다. 불성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따라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하기 애매한 것이다. 이 공안에서 조주 스님이 ‘업식 성 운운’ 한 것은 낮은 근기의 학인을 위하여 설명한 것일 뿐, ‘무(無)’라고 말할 분량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조주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학인들의 질문에 대해 때론 ‘있다’, 때론 ‘없다’고 답하면서 무수한 수행자들을 나아갈 수도, 물러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경지로 몰아넣었다. 이 공안은 사랑·분별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발달된 기록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이도원 원장

“장마 끝에 푸른 산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활짝 개인 맑음처럼 생생한 공간 아닌 공간! 나는 그 체험 안에 있었다. ‘이렇고’의 ‘이것’ 자체가 관념은 구심점(求心點)으로 사라졌다.”

1990년 부산불교교육대학원 원장이 이도원(李道源·62) 법사는 ‘이렇고?’ 화두를 타파한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관성(觀性:보는 성품) 그 자체가 된 체험이었다. 보고자 하는 의식과 본래면목(本來面目)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무명(無明)의 은산철벽(銀山鐵壁)이 사라진 것이다.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7일, 부산 부전동에 소재한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만난 이 법사는 당시의 체험을 “충격적인 감동이요, 안심(安心)의 환희였다. 분명 내관(內觀:자기 마음을 봄)의 문 없는 문은 열린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사는 천선산 조계암 선방에서 15년간 인공 소임을 맡고 있으며, 2년 전부터 동명병원에서 참선을 지도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인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http://www.avatarcenter.co.kr

거사선의 리더들 ⑧ -부산불교교육대학원 이도원 원장

을 3월 부산불교교육대학에 선학과가 신설되면서부터는 매주 월요일 잠선 강의와 실수를 지도하고 있다. 1999년 자신의 구도기인 <그냥 갈 수 없는 길>(불광)을 펴내 주목받았던 이 법사는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20대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록을 읽고 발심했다. 1980년 법어사에서 성운지호(聖雲智嘯) 스님께 계를 받았으며,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천선산 대적선원 신도회장과 부산불교교육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선객(禪客)의 할과 방을 갖춘 채, 겸손하게 자신의 수행경험을 후학들과 나누고 있는 이 법사. 그로부터 긴화선

손가락의 힘도 풀리고 부채는 떨어졌던 것이다. 적막을 깨는 그 소리는 천둥 번개 같은 폭음으로 정신을 맑게 일깨워주는 활이 되어 자성을 관하는 힘이 되어 주었을까.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가슴 서늘하고 몽롱한 느낌과 동시에 공허(空虛)의 통통함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취를 잡았고, 소를 잡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견성하는 순간은 주시자(注視者) 자체가 되는 것인가?

비선대 절벽 위에서 아래를 처음 내려다 볼 때 아찔한 순간처럼, 견성하는 참나는 보려고 하는 심지(心地) 자체가 된다. 화두와 보려고 하는 마음이 결합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즉, 견성이란 내가 내 마음바탕이

벽인 줄 아는 ‘이것’을 보라. 이것이 내 마음이요, 자성이다. 보아서 아는 이것을 계속 돌이켜 보라. 현재 마음으로 보아서 무엇인지를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 이것을 내관(內觀:달마 대사의 관심법), 회광반조(迴光返照: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의 심성을 비취 봄), 조견(照見)이라 한다. 돌이켜 보고 도망가면 또 돌이켜 보라. 이를 악물고 사생 결단코 돌이켜 보시라! 돌이켜 보는 순간 ‘보려는 마음’과 ‘보아서 아는 마음’이 합일되는 체험이 온다. 이것이 견성(見性)이요, 관성(觀性) 자체가 되는 순간이다.

-오매일어(寤寐一如), 숙면일어(熟眠一如)를 보임공부의 과정으로 보는가?

그렇다. 깊은 잠에 빠져도 깨어있는 공부 가 되어야 한다. 성철 스님이 오매일어는 물론 병중일어(病中一如)를 보이셨듯이, 지우 스님(법어사 조실)은 마취 없이 대수술을 하기도 했다. <천수경>에서 우리 마음을 수리하고 수리하고 또 수리하라고 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달리지 않고 깨어있는 쉼 없는 공부가 이어져야 한다. 화두를 타파해서 진리 자체가 된 체험을 하고 난 뒤, 그 분명한 체험상태가 생활하거나 잠을 자도 깨어 있어야만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부산-김성우 객원기자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 역임

구도기 담은 ‘그냥 갈 수 없는 길’ 발간하기도

공부의 요체에 대해 물어 보았다.

-처음, 성품을 본 당시의 기연(機緣)을 말씀해 달라.

1990년 어느 더운 여름 날, 정좌한 채 벽을 보아서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기 시작했다. 마음은 찰나간에 관심(觀心)과 망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부채질을 하다 놓을 잠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런 동안에도 ‘벽을 보아 벽인 줄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고자 애쓰는 관심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돌이켜 관(觀)하는 데 집중되는 듯했는데, 부채가 뇌성벽력과 같은 굉음을 내면서 거칠 바닥에 떨어졌다. 돌이켜 보는 가운데 일념(一念)이 뒹고 동시에, 부채질하던 팔의 동작이 멈춰지면서 부채를 잡았던

되어서 아는 체험 자체가 된다. 소리를 들어서 아는 관음(觀音) 자체, 진공(真空)한 경지 때 깨칠 수 있는 것이다.

-깨침의 순간과 현재의식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꿈속이나 흐리멍덩한 무기(無記)상태에서는 성품을 볼 수 없다. 현재의식이 있을 때 깨칠 수 있다. 현재의식은 깨달음의 장벽이 되는 동시에 깨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성품을 깨닫는 요체를 경험적으로 말씀해 달라.

가능한 벽을 보고 앉아 좌선하는 게 좋다. 현재 자기 마음은 벽을 보고 벽인 줄 아는 데 있다. 이때 벽을 보지 말고, 벽을 보아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 자격증 취득

- 개강안내 10월 15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특강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이프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 수료후 미국최면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Table with 2 columns: Topic (빙의치유법, 전생요법, 명리학, 최면학) and Description.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판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약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집생계요.... 최면학: 최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 1544-2741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